

안정환 어록 제조기...한유미·최용수 솔직담백

촌철살인 안정환 '안 싸우면...' 입증 한유미, 예능 2편·유튜브는 33만뷰 최용수 '골때녀' 감독으로 촉이어가

2020 도쿄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방송가에서 각 종목별 해설자들이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안정환 MBC 축구·한유미 KBS 배구·최용수 SBS 축구 해설위원 등이 주역이다.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에서 특 특 튀는 입담을 자랑한 이들은 관련 후일담을 가지고 방송가로 복귀한다. 자연스럽게 고정 출연프로그램도 시청률 반응 효과를 노리고 있다.

●안정환... '축구 중계 강자' 입증

이번에도 촌철살인의 해설로 인기를 끌었다. "축구는 시간과 공간의 싸움" 등 발언을 '어록'에 추가했다. 7월28일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경기 중계는 10.2%(이하 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정상파 방송 3사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림픽 중계로 모은 '화력'을 현재 방송 중인 MBC '안 싸우면 다형이'로 이어가고 있다. 그와 절친한 해재·현주엽 전 농구스타들과 섬마을에서 생활하는 모습



안정환

을 담는다. 방영 3주 만에 시청률을 쭉 높이며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9월 6.8%(이하 닐슨코리아)로 직전 7월19일 5.8%보다 상승시켰다.

온라인상에서는 2016년 출연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까지 '재소환'되고 있다. 당시 방송인 김성주와 함께 축구 중계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다. 김주성·하석주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과 겪은 에피소드 뿐 아니라 방송의 애로사항을 담은 영상이 올림픽 시즌과 맞물려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목록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한유미·최용수... 솔직담백 '입담'



한유미

한유미 해설위원은 여자배구 대표팀의 인기로 따라 관련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유언 니'이다. 대표팀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최근 올려 공개 4일 만에 33만뷰를 얻었다. 박정아·양효진·김수지 등 대표팀 선수들이 출연한 과거 영상도 다시 조회수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E 채널 '노는 언니' 등 예능프로그램 활영도 마쳤다. 국가대표 동료들과 코트를 누빈 경력을 살린 해설로 호평을 받은 덕분에 특히 박세리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 등



최용수

과 1년여 동안 함께해온 '노는 언니'에서는 올림픽 관련 후일담을 전한다.

최용수 해설위원은 여성 연예인들의 축구 경기를 다루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에서 모델링 'FC구적장신'의 감독으로 나서고 있다. 함께 출연하는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 이천수·이영표 등과 올림픽 해설 이야기도 나눈다.

분석 능력을 갖춘 날카로운 해설로 화제 물의를 하면서 '골때녀'에서 거둔 성적도 기대를 모은다. 최 해설위원은 대한민국과 온두라스 경기에서 황의조의 득점을 예측하는 등 날카로운 '촉'을 자랑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인정



하정우

배우 하정우(43·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박철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800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차례 이상 불법 투약한 혐의다. 그는 "빠져라게 후회한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로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김제덕 등 양궁대표팀 잇단 예능 출연



안산

안산·김제덕·오진혁 등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양궁 대표팀이 잇따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이번 올림픽 양궁 혼성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안산과 김제덕을 비롯해 오진혁·김우진·강재영·장민희가 22일 방송하는 SBS '집사부일체'에 나선다. 또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함께 출연해 올림픽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진혁·김우진은 김제덕과 함께 남자 단체전, 강재영과 장민희는 안산과 함께 여자 단체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윤제균 감독, 케이팝 소재 할리우드 영화 제작



윤제균 감독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이 케이팝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를 만든다. 10일 CJ ENM은 케이팝에 얽힌 이야기를 그리는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 '케이팝:로스트 인 아메리카'(K-Pop: Lost in America)를 윤제균 감독이 연출한다고 밝혔다. 영화 '인터스텔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에 참여한 린다 윌슨이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CJ ENM은 "케이팝과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과 다문화 트렌드가 반영된 신선한 영화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호중 연루 폭행사건, 쌍방 화해 마무리



김호중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연루된 폭행사건이 쌍방 화해로 마무리됐다. 김호중은 7월19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앞에서 2명의 남성과 폭행 시비가 붙었다. 이를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 해당 남성들은 김호중이 살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찾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이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두 남성 등 당사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들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었다"면서 "양측이 화해했고, 서로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윤아·권해효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에



김윤아



권해효

그들 자우림의 김윤아와 배우 권해효가 12일 개막하는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심사위원이 됐다. 김윤아는 이번 영화제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국제경쟁' 부문에서 신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만추'의 김태용 감독 등과 함께 초청작을 심사한다. 권해효는 올해부터 선보이는 '한국 음악영화의 오늘:한국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제' 등을 연출한 김중관 감독, 영화 '기생충'의 영문 번역자이자 평론가인 달시 파켓 등과 함께 한국 음악영화의 새로운 비전 심사에 나선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7일까지 충북 제천시에서 펼쳐진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국영화, 여름 극장가 '쌍끌이 흥행' 도전장

2012년 이후 매년 비슷한 관객몰이 '모가디슈' '싱크홀' 흥행 1·2위 전망

"여름시즌 한국영화의 흥행 키워드는 '재난'과 '전쟁'이다."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는 '여름 극장가 분석' 관련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한두 편의 영화가 관객을 이끈 데서 벗어나 서너편이 1~3주 시차를 두고 잇따라 개봉하며 '쌍끌이 흥행'한 2012년 이후 매년 여름시즌 상황이다. 2009년 '해운대', 2013년 '더 테러 라이브', 2016년 '부산행'과 '터널'이 재난을, 2005년 '웰컴 투 동막골', 2015년 '연평해전', 2016년 '인천상륙작전'이 전쟁을 다루며 최소 558만(더 테러 라이브), 최대 1145만명(해운대)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감염병의 거센 확산세 속에서 엇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영화 '쌍끌이' 관객몰이에 나선다. 7월28일 개봉해 10일 180만(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관객을 돌파한 '모가디슈'와 차승원·김성균·이광수가 주연해 11일 선보이는 '싱크홀'이다.



싱크홀

'모가디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내전의 고립 상황에서 탈출하려는 남북한 외교관들의 이야기이다. '싱크홀'은 순식간에 지하 500m 깊이로 땅이 꺼져 버린 싱크홀의 위험에 놓인 도시민들의 분투를 그린다. 공포로 가득 채워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명한 '전쟁'과 '재난'을 각각 큰 배경이나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를 입증하려는 듯 '모가디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의 3단계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싱크홀'도 '모가디슈'가 개봉 전 기록한 40%에 육박한 수치를 이어받아 10일 오후 2시 현재 38%의 실시간 예매율로 1위에 올랐다. 추세대로라면 두 작품이 11일 박스오피스



모가디슈

1·2위 자리를 나눠 가질 전망이다.

'반도' '강철비2:정상회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경쟁한 지난해 여름에 이어 다시 한번 '쌍끌이' 관객몰이를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전체 극장의 절반 가량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영업제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럼에도 '모가디슈'와 '싱크홀'은 영화계와 극장가 안팎의 기대를 관객 동원 수치로 보여준다. "흥행성이 입증된 소재"로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봉"해 "여름시장의 파이를 키우"(영화진흥위원회 보고서)는 '공식'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이라는 현실적 기대감을 키우는 셈이다.

윤여수 기자

배구 열풍, 스크린으로...김연경 깜짝 출연

'배구 여제'와 '국가대표급' 배우의 만남. 여자배구 국가대표 김연경(33·중국 상하이)이 톱스타 송강호 주연 영화에 깜짝 출연한다는 사실이 새삼 화제다.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배구를 소재로 제작 중인 '1승'이다. 8일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허벅지 찢을 티지는 아픔 속에서도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열정으로 많은 팬의 환호를 받은 김연경을 비롯해 여자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승'에도 시선이 쏠린다.

영화 '1승'은 보잘것없는 어린이 배구교실을 운영하던 송강호가 해체 위기에 놓인 여자배구단의 감독이 되어 1승을 일구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이다. '동주의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는 배우다' 등을 연출한 신연식 감독과 장윤주와 이민지 등 선수들이 코트에 나선다. 국중 구단주인 박정민은 평소 여자배구의 팬이기도 하다.



김연경

김연경은 신인선수 역할로 출연한다. 그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부캐(부캐릭터)로 영화배우가 됐다"면서 "송강호 배우가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포항시청과 대구시청 등 실제 배구선수들도 등장한다. 또 배우들에게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배구 교습으로 힘을 보탤다. 송강호가 지난해 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1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같은 '출연 라인업'에 '1승'은 역동적인 경기 장면 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대표팀이 펼친 선전으로 여자배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송강호, 영화 '1승' 여자배구감독 역할 해체 위기 구단이 펼치는 감동 얘기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 3사의 이번 올림픽 중계방송 최고 시청률 경기는 6일 열린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준결승전으로, 총합 38.1%(이하 닐슨코리아)였다. 또 9일 김연경을 비롯해 오지영(33·GS칼텍스)·양효진(31·현대건설)·김희진(30·IBK기업은행)·박정아(28·한국도로공사) 등 대표팀 선수들이 귀중한 인천국제공항에는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이 우려될 만큼 수백여 팬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런 열기 속에 여자배구를 소재로 한 영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이야기를 그려 410만 관객의 지지를 얻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며 영화 '1승'이 '제2의 우생순'이 될 것인지 벌써 주목하는 시선까지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아이즈원 각개전투 출발 재결합 대신 '솔로' 활동

권은비 앨범·장원영 CF·강혜원 연기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4월 모든 활동을 끝내고 재결합 가능성의 대회를 나섰던 아이즈원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최근 그룹 재결합을 위해 팬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31억여원의 금액을 모았지만, 이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각자 활동에 나서게 됐다.

첫 주자는 권은비. 24일 첫 앨범을 발표하고 솔로로 데뷔한다. 그룹 리더 겸 메인댄서로 활약한 만큼 뛰어난 춤 실력과 보컬을 장점으로 내세워 솔로가수의 입지를 다진다. 그룹 활동이 끝난 후 패션프로그램 '팔로우미-취향에 진심' MC로 진행 실력을 인정받아 '멀티 엔터테이너'의 활동 계획도 세웠다.

이어 최예나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솔로앨범 작업에 한창이다. 그룹에 대한 관심을 솔로로 이어갈 기세다.

'센터' 장원영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솔로 활동을 위해 다양한 영역 활동을 모색 중인 가운데 최근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광고모델로 나서며 스타성을 인정받았다. 이니스프리 측은 "MZ세대 대표인 아티스트이자 꾸밈없고 솔직한 이미지를 가진 장원영이 브랜드의 가치와 잘 맞는다"고 설명했다.

멤버들 가운데 가수가 아닌 연기자로 첫 발은 강혜원이 뒀다. 지난해 가수 박재정의 신곡 '취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낸 그는 웹드라마 '일진에게 반했을 때'에 나선다. 이에 앞서 케이팝 팬플랫폼인 '더어유 버블'을 통해 글로벌 팬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권은비

장원영

강혜원